

# 동두천에 네팔법당 ‘용수사’ 개원

## 능인선원 YBA 3년간 불사 결실...네팔 이주민센터로 활용도

경기도 양주 동두천에 가뭄의 끝을 알리는 봄비가 오던 5월 18일. 날은 다소 쌀쌀했지만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는 한국과 네팔 불자간의 훈훈한 정이 오고갔다. 능인선원 YBA(Young Buddha Association: 젊은부처들, 총재 지광)가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인들을 위해 ‘용수사(주지 우르젠 라마)’를 개원한 것이다.

동두천 신시가지 지행동 네팔법당 용수사 개원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시공무원, 네팔대사, 이주민노동자 등 내외국인 300여명이 모여들었다. 230㎡이 넘는 법당은 용수사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이번 용수사 개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굵지 않은 요즘 일어난 큰 사건 중 하나다.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고,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 산업이 이끌어지지 않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이방인’이다. 그런 외중에 능인선원 YBA에서는 불교가 주 종교인 네팔인들이 조금이나마 불심을 쟁기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당을 조성한 것.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큰 뉴스였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인들은 대략 8천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중 1천여 명이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용수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외국인 이주민센터’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불자가 아닌 네팔인들도 수시로 찾아와 고향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서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능인선원 YBA가 양주 동두천에 마련한 네팔법당 용수사 개원식에는 지광 스님(왼쪽 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해 수 많은 불자들이 참석했다.

복아있는 것.

YBA에서는 용수사를 개원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계획을 짜고, 불사금을 모아왔다. 지난해 8월 능인선원에서 연 ‘만다라 전시회’ 수익금도 용수사 개원에 쓰였다. 능인선원 지광 스님은 이날 3년간 노력한 결실에 감격하듯 “세상은 하나, 우주는 하나”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까말 프라사드 코이탈라 네팔대사도 “대사관 설립 1년 만에 찾아온 큰 경사”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 외 여야의원, 네팔 스님 등 참석한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러나 불법 체류 이주민정책과 맞물려 그들을 위한 정책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인권, 의료 등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용수사를 개원한 YBA 측은 “이들이 이주민이기에 앞서 우리의 똑같은 감정과 정서를 가진 사람인데 그들은 위한 문화·종교정책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두천 일대 네팔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을 마련하니 너무나 기뻐는지 저너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용수사 신임주지 우르젠 라마 스님은 “법당을 찾는 네팔인들의 미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하나 되는 세상이 보이는 듯 했다”며 “생각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육신은 피곤했지만, 네팔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은 너무나 기뻐다”며 연신 밝은 모습이었다.

### ■용수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용수사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가스렌지 등이 기본적으로 구비돼 있다.

용수사가 외국인노동자 쉼터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앞으로 용수사는 어떻게 운영될까. YBA는 “네팔 사람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한다. 즉, 네팔 노동자들 자체 모임형성을 적극 유도해 공동체를 형성, 심리적 지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역시 네팔인 자조 모임이 형성되면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러갈 예정이다. 용수사를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YBA의 바람이기 때문. 물론 YBA에서 후원금은 계속 전달한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한국어교실도 운영될 예정이다.

법회도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마다 주지 우르젠 라마 스님을 법사로 네팔식 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031)863-2204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수행도량 건립 ‘희망의 불’ 밝힌다

### 조계종 해광시각장애인불자회 양초판매 개시

조계종 해광시각장애인불자회(회장 김부봉)가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양초 판매’를 시작한다.

시각 장애인들 스스로 수행정진하기 위해 1990년 설립한 해광시각장애인불자회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수행도량을 지어야겠다는 자체 의견을 모아 10년 전부터 바자회, 일일차장 등을 통해 수행도량 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왔다. 그러면서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서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공동생활체로 함께 정진한 결과, 올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산수 1리에 1만평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부지에 ‘해광정

사’를 지어 시각장애인들의 기도도량을 겸한 장애인 노후복지 생활시설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6월 10일 착공에 들어갈 해광정사 불사를 진행하려 보니 건립 기금 6억원 중 절반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광시각장애인불자회는 그래서 자립의 서원을 세우며 ‘양초판매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해광시각장애인불자회에서 판매할 양초는 경남 김해시 공장에서 지체장애 15명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며, 종류는 약 170가지다. 가격은 법당용 밀대 1박스 50개를 6만원에 판매한다. 밀대 외에도 다양한 양초가 구비돼 있기 때문에 개인, 도·소매업자, 사찰 등 누구나 구

입이 가능하다.

또한 양초 판매 뿐만 아니라 폐초 수거 사업도 함께 한다고 전했다. 폐초는 이후 산업용 양초로 다시 납품,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역시 전액 해광정사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해광불자모연회 배주관 회장은 “이번 사업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협력해 서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도 노년 대비를 하면서 열심히 수행정진, 성불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55)313-2700 김강진 기자



## 봉사는 내운명... “감사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만난 간병 호스피스 봉사자 서형여씨(49)씨는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6-12명의 환자를 돌본다. 매주 수요일, 어김없이 만나는 환자들을 볼 때면 힘도 있을 텐데, 서씨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활달한 성격과 넉넉한 웃음이 서씨의 ‘트레이드마크’다. 서씨에게 다가간 한 병원 직원이 묻는다. “항상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안 힘들세요?” 그러자 서씨가 답한다. “하나도 힘 안들어요. 정말이에요.”

### 호스피스 봉사자 서형여씨

서씨는 현재 ‘주 5일제 봉사’를 하고 있다. 하상장애인복지관, 성동노인복지관, 장암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까지 종교를 초월해 어디든 달려간다. 그렇게 산지 벌써 7년째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서씨의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무렵, 그는 갑자기 포레 친구들과의 소꿉이나 여행 등이 무료하더라.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니 문득 안암동 개운사에 이르렀는데 그는 여기서 ‘운명처럼’ 한 문구에 눈이 갔다고 한다. ‘고대안암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서씨는 그렇게 그 교육을 신청하면서 봉사자의 길을 걷게 됐고, 지현 스님(고대병원 법당 지도법사·호스피스 봉사과) 만나게 됐다.

처음부터 병원 봉사, 그것도 호스피스 봉사라니 정말 겁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다. 봉사자 생활이 모두 다트기는 하지만 병원 봉사만큼 심적 여유로 각오를



시니 저도 좋아요.”

때로는 환자들이 서씨에게 매몰차게 구는 경우도 없진 않았을 터다. 그래도 그는 예사롭게 넘길 줄 안다.

알고 보니 서씨의 삶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이 컸다. 팔순을 전후한 연세인 서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지금까지

### 7년째 종교초월한 호스피스 봉사

### “불자로서 대사회적 자비행 실천”

단단히 해야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저는 진짜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격에도 잘 맞고요. 병원 와서 아픈 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런 것이 참 좋더라고요.”

서씨는 ‘힘들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 아픈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은 거의 중증 환자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말기암 환자들이나 희귀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앞에서 서씨는 항상 웃음을 준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종이접기 도구를 준비한다.

“종이접기를 하면 환자 분들이 잠시나마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그 분들의 마음을 환기시키도록 만드려고 종이접기를 하는데 재밌어 하

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 서씨는 “항상 여유롭게 자식을 키우셨던 부

모님께 늘 감사드립니다”고 말한다.

그가 진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다. 불자들 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병원 봉사를 기피하고 호스피스 봉사라는 거창한 대의를 갖고 온 사람들도 대부분 조금만 지나면 고개를 흔들더라는 것이다. 서씨는 “건강한 사람들의 편견으로 환자를 보면 힘을 수 밖에 없다”면서 “불자들이 병원 봉사를 통해 대사회적으로 자비행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상 밝게 웃는 서씨지만 불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신념만큼은 확실한 것이다.

“저는 지금 이대로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 같아요. 병원 봉사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자님들, 우리 함께 봉사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 태아영가 천도재 안내

태아영가는 엄마, 아빠의 업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태아영가입니다. 엄마, 아빠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 낙태된 태아영가에게 참회기도와 함께 다음생에 밝은 빛을 보게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세요. 가슴에 담아 두지 말고, 생각을 미루지 마세요. 태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 하루속히 저를 아픔속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지금도 태아영가는 슬프게 말합니다. 기도해달라고...

- 망태아도 생명이다.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다, 그 업으로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얻게 된다.
- 엄마, 아빠는 그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생에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시기를 발원합니다.

**기도안내**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입재일 : 양력 6월 1일 - 일요일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회향일 : 양력 7월 20일 - 일요일

기도는 입재 / 3재 기도 / 5재기도 : 관육 / 7재 기도 : 회향

**준비물**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 (5재 관육에 필요한 태아 비누,수건,양말, 옷, 신발 등)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협 225051-51-113712 (구담사)

##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5 / TEL : (031)533-2855, 2584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 구담사 찾아오는길

- 1호차 : 조계사 앞(7:00) → 한성대입구역(7:10) → 길음역 10번 출구 (7:10) → 미아삼거리역(7:20) → 수유역(7:30) → 도봉산역(8:00) → 일동사내 → 구담사
- 2호차 : [지하철 7호선] 태릉역5번 출구(7:20) → 노원역3번 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의정부터미널 앞(8:20) → 일동사내 → 구담사
- 3호차 : [지하철 3호선, 7호선]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점 앞(7:20) → 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일동사내 → 구담사
- 4호차 : [지하철2호선]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광나루역3번출구 버스정거장(8:05) → 구리역 앞 GS백화점 육교앞(8:20) → 구담사
- 5호차 : [지하철1, 2호선]신도림역 1번출구 육교 건너 푸르지오앞(06:30) → [1호선]구로역 구로사거리 열린메트로앞(06:35) → [5호선]목동역 1번출구 좌측(06:45) → [3호선]일산 백석역 7번출구(07:15) → 원당역 6번출구(07:30) → 의정부터미널(08:10) → 일동사내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